

# 양봉 자조금 추진위원 구성

6월 12일 제4차 이사회 개최

자조금 통한 홍보사업 본격진행

사양별꿀 표기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제4차 이사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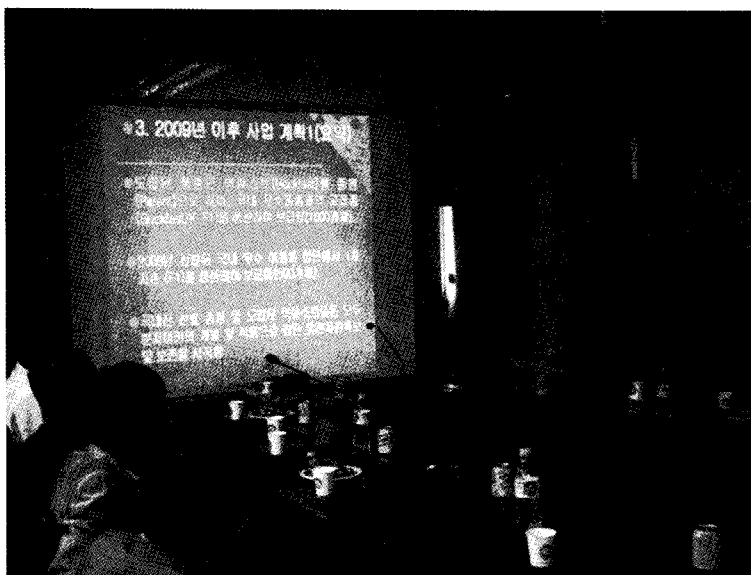
구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의거 축산업자 8인 이하,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 학계인사, 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이사회는 배경수 양봉협회장을 비롯하여 조균환·오만균 부회장, 김종문, 정인규 이사를 양봉자조금 추진위원으로 결의했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6월 12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양봉자조금 추진위원을 구성했다.

양봉자조금 위원회 구성은 축산자조금의

지회장 중에서는 이사회 이후 열린 제2차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 지회장들의 회의를 거쳐 정현조 경남지회장, 강순종 전남지회장, 정해석 강원지회장이 위원으로



제2차 연석회의에서 윤병수 교수가 여왕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사양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사양벌꿀이라고 표기키로 했다.

사고분회 처리되어 있는 안동분회 민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마련키로 하고 회장단과 김종문·신상필 이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7월중 안동시 분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선임됐다.

임원과 양봉농가 이외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봉자조금은 6월30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본격적인 홍보사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 최근 사양꿀 논란으로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실추된 만큼 벌꿀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존의 프리미엄 벌꿀 인증은 그대로 하

이어 열린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는 협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던 경영안정자금 연기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갑작스런 난색표현으로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임원 지회장이 힘을 합쳐 다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고 결의했으며, 이후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벌꿀 수매자금과 양봉사료자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봉**